

한화그룹,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

2012년 임원 102명 승진인사 단행 ... 김경은 상무보는 최초 여성임원

한화그룹은 3월7일 한화 화약부문, 한화갤러리아, 한화기술금융 등 계열사 대표이사 5명을 포함 모두 102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경은 한화케미칼 상무보

심경섭 한화 화약부문 대표 내정자는 화약사업본부장, 인재경영원장, 경영기획실 인력팀장을 역임하면서 사업과 인사관리 부문에서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다.

박세훈 한화갤러리아 대표이사 내정자는 맥킨지컨설팅, 현대카드 등을 거치며 마케팅전략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2012년 2월 입사 후 한달 만에 승진했다.

한화기술금융, 한화63시티, 여수열병합발전 대표이사에는 한우제씨, 이윤국씨, 권혁웅씨가 내정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2012년 임원인사의 특징은 세대교체 차원에서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과 내부 승진자 발탁을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경은 한화케미칼 신입 상무보는 2011년 6월 미국의 머크(Merck)와 7800억원 상당의 바이오시밀러 계약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화그룹 제조 계열사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임원으로 승진했다.

◇한화/화약 ▲전무 승격 장시권 최양수 ▲상무보 승격 고창성 김병국 김원걸 한진석 ▲연구임원 상무보 승격 김주성 ▲전문위원 상무보 승격 고병주 박상구 ◇한화/무역 ▲상무 승격 진광만 ▲ 상무보 승격 김항철 윤원재 최희승 ◇한화케미칼 ▲전무 승격 임종훈 현광현 ▲상무 승격 김상훈 박상경 장운익 한수영 ▲상무보 승격 공정호 권기영 권순일 김경은 김진옥 박구동 이점우 조현수 최재권 최정숙 한주희 ▲연구임원 상무 승격 기준학 ▲상무보 승격 김동욱 ◇한화L&C ▲상무 승격 이종보 ▲상무보 승격 김문태 서종산 유문기 ▲연구임원 상무보 승격 김남형 이영훈 ◇한화솔라에너지 ▲상무 승격 신지호▲상무보 승격 김승모 ◇한화폴리드리머 ▲상무보 승격 안상호 ◇한화테크엠 ▲상무보 승격 송욱용 유정상 ◇드림파마 ▲상무보 승격 이일희 ◇여수열병합발전 ▲상무보 승격 손기호 ◇한화솔라원 ▲상무보 승격 박인복 서정표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7>